건설산업 선진화 -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과 정착으로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가치 창조 산업 -

2008년4월말에발족한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는9개월간에걸친 활동의결과물로 금년1월말에「건설산업선진화비전2020」을발표했다. 선진화비전은'국민에게신뢰받는 글로벌 가치 창조 산업'으로 정했다. 건설산업의 선진화를위해서는무엇보다먼저부정·부패·부실과같은부정적이미지를벗어나국민의신뢰를얻어야한다. 또한 선진화된건설산업은내수산업으로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가진수출산업이되어야한다. 그래야경제성장에기여할수있다. 아울러건설산업은 수요자가 원하는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 수요자는싸구려시설물만원하는것이아니다. 설사가격이좀높더라도예술적가치가 높은건축물을원하기도하고, 빠른시일내에 완공시켜 주기를 원하기도 한다. 건설산

업과 같은 서비스산업은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킬수있는가치창조산업이되어야 한다. 이처럼 선진화 비전은 신뢰, 글로벌, 가치창조라는세단어로요약할수있다.

3대 목표 - 5대 전략 - 20대 추진 과제

「건설산업선진화비전2020」에서는3대 목표와5대전략및 20대추진과제를제시 했다. 3대목표부터보자.

첫째, 건설시스템혁신을통해5년내건설 사업비를 30% 절감하겠다는목표가 있다. 그 방법은 공사비 삭감이 아니다. 발주자의 사업관리역량을강화하고, 공공건설 사업의 총체적인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해 달성하자는 것이다. 건설시스템 혁신을 통해 전략적인 사업비 절감 노력을 기울인다면, 연간약 60조원에 달하는 공공 건설 예산은 향후 5년 동안 18조원 가량(연간 약 3.6조원)의절감효과를기대할수있다.

둘째, 2020년까지연간해외건설수주목표를 2,000억 달러(2008년 해외건설 수주 실적의약4배)로설정했다. 지금은이같은 목표 달성이 터무니없어 보일 것이다. 하지만불과 5년 전인 2003년의 해외건설수주 실적이 2008년의 10분의1도안 되는 37억 달러였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라. 2020년까지 연간 2,000억 달러의 해외건설 수주 목표는 달성 불가능한 꿈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셋째, 깨끗하고투명한건설문화를정착시켜서 국민의신뢰를얻는것도중요한목표다. 건설산업에 만연된 부정 · 부패는 시설물의 품질저하나부실공사를초래할가능성이 높다. 예산손실은 물론건설업체들이 본원적인 생산 활동보다는 지대 추구(rent seeking)에 몰두하는 바람에 총체적인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그 결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하락을 가져오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가세계 10위권의경제대국으로성장한만큼, 투명성 분야에서도세계 10위권으로 평가받자는것이다.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의 추진 기구와 추진 방법

3대목표달성을위한5대전략은분권 · 책임 · 성과에 기초한 공공 발주 시스템 혁신, 설계 · 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중소기업 지원및협력 관계혁신, 투명성제고와부패척결, 지식 · 정보중심세계 일류 산업 도약 기반 조성 등이다. 공공 발주시스템을가장먼저내세운것에서도짐작할수 있듯이, 선진화를추진하는방법으로 건설업계의 혁신보다 공공 발주기관의 혁신을중시하고있다. 또한시공부문에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설계 · 엔지니어링의글로벌경쟁력강화도선진화를위한중요한 과제다. 이 같은 5대 전략별로 추진해야할구체적인과제를 20개로정리하여제시했다.

3대목표, 5대전략, 20대추진과제를가릴 것 없이, 그 바탕에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과 정착 이라는 선진화위원회의 기본철학과방향을깔고있다.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연결되기위해서는코리안스탠더드가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과 정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미국이나영국같은특정국가의특정제도가아니라 개방 · 공정 경쟁 · 투명성 · 효율성등을 핵심으로하는시장경제원리를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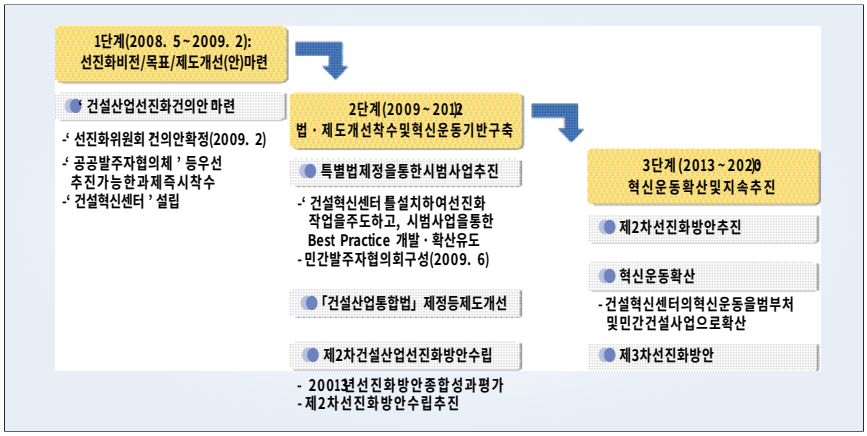
지속성 및 일관성 확보 방안 마련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과거에도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경우대책수립후추진주체가불명확했기 때문에 지속성과 일관성이없었다. 선진화위원회는 향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추진할 기구로 2가지를제안했다.

첫째, 영국의건설혁신기구인CE(Construction Excellence)를벤치마킹하여, 민관공동으로‘ 건설혁신센터 를설립하여선진화비전의실천을주도하자는것이다.

둘째, 당장 금년 2월부터라도 국토해양부산하5개공기업및일부지방청을중심으로 공공 발주 시스템 혁신을 위한 ‘ 공공발주기관 협의체 를 발족시키자는 것이다. 추진방법과관련해서는「(가칭)건설산업선진화특별법」을 2년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선진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서 먼저 시범적으로시행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제안했다. 향후 2년 간 시범 사업을 시행한 뒤 문제점과 부작용을 보완하여 관련 개별 법령개정및전면적인시행을추진하자는것이다. 시범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Best Practice를 발굴하여 건설산업 전체로 확산시키고, 지속적인성과 평가도 병행해야 한다.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의 단계별 추진 일정



2020년까지건설산업선진화를추진하는 일정은크게3단계로구분할수있다.

제1단계(2008년 5월 ~ 09년 2월)에서는 선진화 비전, 목표 및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데초점을두었다. 협 · 단체등이해관계집단의의견수렴및공개토론회등을거쳐 2009년 2월 말까지 위원회의 「건설산업 선진화 건의안」을 작성했다. 2009년부터3월부터본격적인법 · 제도개선또는「(가칭) 건설산업선진화특별법」제정작업에들어가되, ' 공공 발주기관 협의체 구성 등과 같이 특별한법률개정이나이해관계집단의반대없이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는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제2단계(2009년 3월 ~ 12년)에서는 법 · 제도개선에본격적으로착수하여혁신운동의기반을구축한다.' 건설혁신센터 를구성하여건설산업선진화작업을주도하도록하고,「(가칭)건설산업선진화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 및 산하공기업본부에서는건설혁신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 · 보급하고, 일선 발주기관은 시범 사업 참여를 통해 Best Practice를 발굴하고 축적하며 공유하도록 한다. 시범사업의성과평가를통해건설산업선진화방안의확산및전체공공발주기관의 Best Practice 실천을유도한다.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추진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2013년에 시행하고, 성과 평가 결과를토대로제2차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을수립한다.

제3단계(2013 ~ 20년)에서는 제2차 건설산업선진화방안수립및추진과더불어건설혁신센터의 혁신 운동을 범부처 및 민간 건설사업으로 확산하고, 건설 사업비 30% 절감 여부 등은 성과 평가를 토대로 전국적 인홍보와교육을지속적으로추진한다.

경제 성장률 1%p 이상 높이기 등 기대

5대전략과 20대과제를성공적으로추진하여 3대 목표의 달성이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 성장률을 1%p 이상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예산 절감은물론고급기술자및엔지니어등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시설물의 품질과가치도획기적으로높아질수있으며, 투명성 제고로 국민의 신뢰 회복도 이루어질 것이다.

건설산업 선진화, 이제부터본격화

지난10년간수립된 10여건이상의건설산업 관련 대책은 대부분 정부 주도로 작성되었다. 하지만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는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공무원들이 각 분과의 간사로 참여하여 행정 지원을 하는 구조였다. 7개 분과에 참여한 위원 수는 약 70명이었고, 공식 회의만 무려 170여 차례 개최되었다. 수십 명이 참여하는 선진화위원회위원간의워크숍이나회의자체가 사실상공청회나다를바가없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의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세부방안의구체성이떨어지는경우도있다. 기존 대책에 여러 차례 포함되었던 방안도있다. 건설업체간이해관계가상충되는 방안도 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민간주도로작성된선진화방안의기본철학과 접근 방법은 기존 대책과 차별화되어 있다. 수많은민간전문가들의실질적인참여를 통한방안수립과정도기존대책과차별화된 절차였다. 공무원과공기업 임직원, 민간 전문가, 그리고건설업계의주요인사들이건설산업선진화를두고이렇게오랫동안열띤토론과정에참여한사례는앞으로도보기드물 것같다. 특히 건설산업 내부의문제점에 대한솔직한자기반성과비판을촉구했을뿐만 아니라, 대학교수나연구원 등민간 전문가의전문성과도덕성에대한통렬한비판을빼놓지 않았다. 투명성과부패 척결은 다른 어떤대책보다강조했다.

건설산업선진화방안은국토해양부에건의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2월 말에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범정부 내지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실행력을확보하기위해당장2월부터국토해양부산하기관을중심으로공공발주자협의체가구성될 전망이다. 이렇게보면, 건설산업 선진화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실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정 · 삭제 · 조정이 이루어지겠지만, 지속성과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회가 설정한 기본 원칙과 접근 방법의틀속에서세부실행 방안이 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장